

조선시대 『황제내경』의 간행과 강서 활용 연구

A Study on the Publication and the Use of Lecture Book of *Huangdineijing* in Joseon Dynasty

朴 薰 平 (Park, Hun-Pyeong)*

◁ 목 차 ▷

- | | |
|------------------------|------------------|
| 1. 서 론 | 3.1 조선 시대의 강서 활용 |
| 2. 조선 시대 『황제내경』의 간행 | 3.2 小考 |
| 2.1 조선 전기 | 4. 결 론 |
| 2.2 조선 후기 | <참고문헌> |
| 3. 조선 시대 『황제내경』의 講書 활용 | |

<초 록>

『황제내경』은 전통의학 이론의 준칙을 제공하는 의학 경전으로, 『소문』과 『영추』로 구성된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 『내경』의 간행과 강서로서의 활용을 살핀 것으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615년 내의원 간본의 번각본이 14책과 15책으로 구분되는지 불확실하다. 2) 조선 간본은 조선 후기에 이루어진 『운기론오』 합본을 제외하면 내용의 변화는 없다. 3) 『소문』은 16세기 중반 들어서야 의관의 필수과목이 되었다. 4) 『내경』의 활용은 금원사대가 이론의 활용과 관련이 깊다. 5) 『내경』의 활용은 임상에 연결할 매개 이론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조선 시대 중기와 후기에 그 역할을 했던 매개물이 『동의보감』과 운기의학이었다.

要語: 『황제내경』, 『소문』, 『영추』, 『동의보감』, 의관

<ABSTRACT>

Huangdineijing is a medical scripture that provides the rules of traditional medicine theory, consists of *Suwen* and *Lingshu*. The following facts were discovered by examining the publication and the use of lecture book of the *Neijing* in the Joseon Dynasty. 1) It is unclear if the reprinted version of Naeuiweon's published version in 1615 was classified into 14 and 15 volumes. 2) There is no change in the contents of the publications of the Joseon Dynasty except for the *Yunqilunao* manuscripts made in the late Joseon Dynasty. 3) It wasn't until mid 16th century that *Suwen* became a mandatory subject for medical bureaucracys. 4) The use of *Neijing* is closely related to the use of Geumwon Sadaega (4 Medical Masters of the JinYuan era)'s theory. 5) The use of *Neijing* was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 mediating theory to connect to the clinic. In the middle and late Joseon Dynasty, the mediators who played the role were *Donguibogam* and Ungi Medicine.

Key words: *Huangdineijing*, *Suwen*, *Donguibogam*, Medical bureaucracy, *Yunqilunao*

*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과학교실 조교수(lillipute@dsu.ac.kr)

투고일: 2020년 5월 18일 최초심사일: 2020년 5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6월 8일
서지학연구, 제82집, 121-140,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2.121>

1. 서론

현재 한의과대학의 문헌학 관련 교육은 주로 原典學과 醫史學을 가르치는 교과목으로 행해진다. 이중 의사학 교육은 문헌 텍스트 자체보다는 텍스트 바깥의 의학자, 의학서적, 의학 학파, 치료술, 의료 문화, 비교의학사 등을 주 연구 분야로 삼는다. 반면 원전학 교육은 한의학 고전 텍스트에 초점을 두어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하여 秦越人の 『難經』, 張仲景의 『傷寒論』 등 주요 한의학 고전을 강학 교재로 사용한다.

『황제내경』은 『내경』이라 간칭되며 동아시아 전통의학 이론의 準則이 되는 의서이다. 전설상의 인물인 黃帝가 그의 신하인 岐伯 등과 의학에 대하여 논한 내용으로, 중국 西漢 시대에 완성되었으며 『素問』과 『靈樞』로 이루어졌다.¹⁾ 조선 시대에도 『내경』은 한의학 이론의 기초 토대를 제공하였다. 『내경』의 조선 의학에서의 지위는 正祖의 말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正祖는 『日得錄』에서 의서들을 유가 경전이다 비유하다가 『素問』에 대하여 “『論語』와 같다.”라 하였다.²⁾ 즉 모든 의서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경전인 셈이다.

조선 후기 『내경』의 생리학 지식은 의학의 영역을 넘어서 당시 지배층에 폭넓게 수용되었다. 예를 들어 1726년(영조 2) 司諫院正言(정6품) 柳謙明은 『素問·上古天真論』의 내용을 인용하여 상소하였다.³⁾ 李圭景⁴⁾은 백과사전식 저작인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平人의 키를 8척이라 한다.”하는 등⁵⁾ 다양한 인체 생리 지식의 원천으로 『소문』을 활용하였다. 楓石 徐有榘⁶⁾가 1827년 경 저술한 『林園十六志·仁濟志』는 의학 관련 박물학서인데 752종의 인용 문헌 중 하나가 『내경』으로 68회 인용되었다.⁷⁾ 의학 외의 영역에도 『素問』의 지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愚伏 鄭經世⁸⁾는 유학 용어를 설명하면서 “至人이라는 두 글자는 비단 『黃帝素問』과 그 이외의 여러 서책에 다 실려 있을 뿐 아니라 云云”하였다.⁹⁾ 李裕元¹⁰⁾의 『林下筆記』(1871년)에서 地理를 설명하면서

- 1) 홍원식, 윤창열, 김용진, 『개정증보판 한중의학사 개설』 (대전: 주민출판사, 2017), 172-174.
- 2) 『홍재전서 권162·일득록 2』. “素問如論語. 入門如大學. 本草如詩傳.”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접속일 2020.5.15.]
- 3) 『승정원일기 628책』 영조 2년 12월 7일 기사. “以素問七七之數, 爲斷, 而五十後生子”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DB <<https://sjw.history.go.kr>>. [접속일 2020.5.15.]
- 4) 1788-?. 본관은 전주. 이덕무의 손자로 실학자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접속일 2020.5.15.]
- 5) 『오주연문장전산고·인사편 1』 人事類 “《素問》以八尺爲平人, 則當曲尺六尺四寸。然周之一丈, 卽今八尺, 則世所謂八尺長身者, 乃一丈人也。豈不謂之長人乎。”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접속일 2020.5.15.]
- 6) 1764-1845. 본관은 대구. 이조판서, 우참찬, 대제학을 지낸 문신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접속일 2020.5.15.]
- 7) 노기춘, “임원십육지 인용문헌 분석과 2,” 『서지학연구』 제35집(2006), 233, 246-248.
- 8) 1563-1633. 본관은 전주. 류성룡의 문인으로 1586년 알성문과에 급제, 예조, 이조판서, 대제학을 지낸 문신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접속일 2020.5.15.]
- 9) 『우북집 권14·잡저』 “至人二字, 非但素問諸書皆有之.”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黃帝素問』에 이르기를, 하늘은 서쪽과 북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왼쪽은 차갑고 오른쪽은 서늘하며, 땅은 동쪽과 남쪽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은 뜨겁고 왼쪽은 따뜻하다 하였다.”¹¹⁾ 그런데 단편적인 生理 지식을 제외하면 『황제내경소문』 자체는 조선의 지식인에게 교양서로 읽힐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상고친진론』편 정도의 인용을 빼면 다른 편의 인용은 대개 의학에 깊은 소양을 가진 이의 저작이나 총서 수준에서만 언급되기 때문이다. 지배층에 폭넓게 수용된 기본 생리 병리론을 넘어서는 지식을 일반 사대부나 지식인의 문집류 등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소문』 완질이 14-15책에 이르는 거질인데다 바로 임상에 적용하기 어려운 의학서라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강연석 등은 우리나라의 『황제내경』 연구사를 정리하였는데, 시기별로 어떻게 『내경』이 연구되고 교육되었는가 간략하나마 검토하였다.¹²⁾ 그러나 강연석 등의 연구에서는 石谷 李圭藩의 저술 외에는 본격적인 연구라 할 만한 先代의 성과를 찾지 못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국가 제도 안의 한의학 교육의 전통 단절로 인하여 일제강점기 전후 한의학 교육의 양상은 다를 수밖에 없으나, 조선 시대 의학교육의 실체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그동안 깊은 이해에 한계가 있었다. 박훈평은 조선 시대 제도권 의학 교육에 대해 통사적으로 다루었으나 강서 텍스트를 개개로 다루지는 않아 하나의 텍스트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파악하기 어렵다.¹³⁾ 김도훈은 1960년대 후반에 『원서강독』이라는 교재 발간과 1971년 경희대학교 원전 교실의 성립 등 일련의 과정을 현대 한의과대학의 『내경』 교육의 시초로 보았다.¹⁴⁾ 그러나 『내경』이 근대 이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권 안에서 활용되었는가는 선행 연구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고를 통하여 조선 시대 『황제내경』의 간행과 의과 및 취재에서의 강서 활용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근래 한의과대학 내 원전학 교육에 대한 여러 담론을 보완하거나 논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접속일 2020.5.15.]

10) 1814-1888. 본관은 경주. 함경도관찰사, 좌의정, 영의정을 지낸 재상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접속일 2020.5.15.]

11) 『임하필기 권1·四時香館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접속일 2020.5.15.]

12) 강연석, 김남일, “한국 황제내경 연구 약사,” 『한국의사학회지』 제21권 1호(2008), 89-95.

13) 박훈평,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제29권 2호(2016b), 2-14.

14) 김도훈, “원전학 교육현황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19권 4호(2006), 103. 현재는 ‘원전학교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1980년대만 하더라도 ‘원전교실’이란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되었다.

2. 조선 시대 『황제내경』의 간행

2.1 조선 전기

박훈평에 따르면 현재 알려진 조선 전기 『소문』의 판본은 세종조 甲寅字本, 성종 이후의 甲辰字本, 명종연간(1554-1557년 사이)의 乙亥字本, 錦山간본, 忠州간본, 善山간본의 6종인데 앞의 3종은 금속활자본, 뒤의 3종은 목판본이다(<표 1> 참조).¹⁵⁾

<표 1> 조선 전기 『소문』 판본

판본명	간행년	형태사항	출처	소장처
甲寅字本	세종조 추정	미상	손보기 ¹⁶⁾	미상
甲辰字本	성종-중종조 추정	미상	손보기 ¹⁷⁾	일본 다케다문고
乙亥字本	1554-1557년 사이 전의감 간행	金屬活字本, 12卷 8冊 四周單邊, 半郭, 10行 18字, 黑口	백유상 ¹⁸⁾	일본 미하라 시립도서관 궁내청 서릉부
錦山간본	1568년 이전	木版本, 12卷 6冊	『고사촬요·책판목록』 ¹⁹⁾	미상
忠州간본	上同	木版本, 미상	上同 ²⁰⁾	미상
善山간본	上同	木版本, 미상	上同 ²¹⁾	미상

1412년(태종 12)에 고려의 外史庫였던 충주사고의 서적을 바치게 하여 춘추관에 간직하게 하는 책 중에 『黃帝素問』이 있다.²²⁾ 이 『黃帝素問』이 세종조에 간행되는 갑인자본의 모체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²³⁾ 조선에서 간행된 『소문』의 최초 판본인 갑인자본에 대하여 손보기는 고려대 화산 문고에 소장한 것으로 밝혔으나, 현재 고려대는 갑인자본의 복각 목판본만 소장 중으로 갑인자본 판본의 현존은 알 수 없다(<사진 1> 참조).²⁴⁾

15) 박훈평, “조본 황제내경소문 판본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제27권 2호(2014), 76-77.

16) 손보기, 『금속활자와 인쇄술』(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284.

17) 손보기(1974), 300.

18) 백유상, “을해자본 황제내경소문에 대한 조사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제24권 3호(2011), 113-124.

19)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서울: 아세아문화사, 2007), 249.

20) 김치우(2007), 249.

21) 김치우(2007), 249.

22) 『태종실록』 1412년(태종 12) 8월 7일 기사. “命史官金尙直, 取忠州史庫書冊以進。- 中略 - 《黃帝素問》- 中略 - 《冊府元龜》等書冊也。”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http://sillok.history.go.kr>>. [접속일 2020.5.15.]

23) 일본 세이카도 문고에 12권 6책 완결로 세종조 갑인자체 본을 번각한 목판본이 소장 중이다. 권말에 “元本二十四卷今併爲一十二卷刊行”이 있어 조선 저본의 유래에 대해서 추정할 단서가 있다. 서지 사항은 四周單邊 半郭 22.3x14.4cm, 有界, 12行21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전체 책의 크기는 26.7x17.8cm이다. 차미애, 옥영정, 『일본 세이카도문고 소장 한국 전적』(서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8), 173.



<사진 1> 『新刊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 제4책』의 본문 첫 면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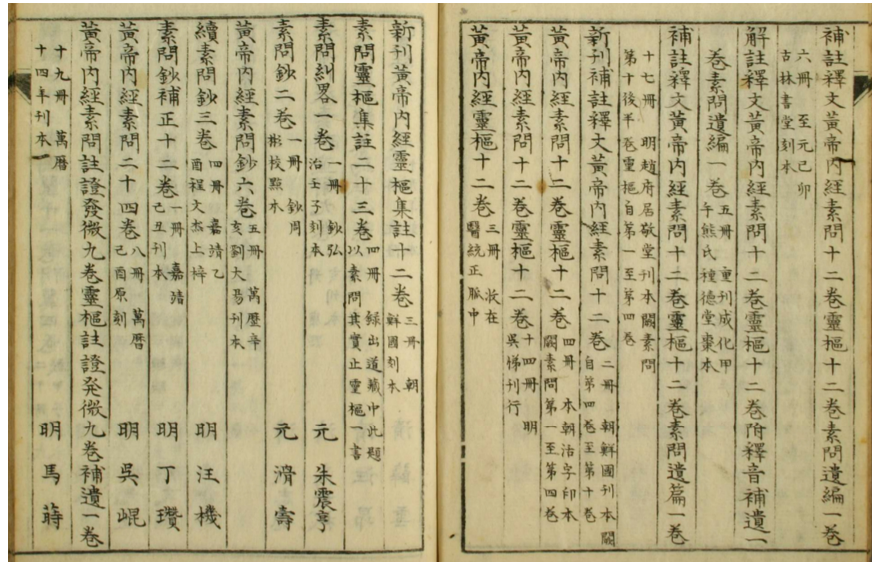
『소문』 외에 조선 전기에는 『영추』가 1차례 간행되었다. 바로 을해자본 『新刊黃帝內經靈樞集註』로 12권 3책이며 현재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 중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국 歷城縣 儒學教諭 田經이 교정한 중국본을 그대로 복각한 판본이다.²⁵⁾ 현재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 중인 을해자본 『新刊黃帝內經靈樞集註』와 을해자본 『新刊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은 丹波元簡 집안의 장서였다가 궁내청으로 들어갔으며, 1831년 저술된 丹波씨 집안 장서목록인 『聿修堂藏書目』에 기록되었다 (<사진 2> 참조).²⁶⁾

24) 『新刊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신암 貴 53 2). 고려대학교도서관. 자료찾기 <<https://library.korea.ac.kr>>. [접속일 2020.5.16.]

고려대 신암문고에 소장중인 1책 零本 목판본은 제4책으로 권4-7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지 사항은 四周單邊 半郭 22.3x15.0cm, 有界, 12行21字 註雙行,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전체 책의 크기는 30.0x18.4cm이다.

25) 백유상(2011), 117-118.

26) 早稻田大學. Waseda University Library <<https://www.waseda.jp/library/en>>. [접속일 2020.5.16.]



<사진 2> 『聿修堂藏書目』의 조선본 『내경』 기록(일본 와세다대학교 도서관 소장)

2.2 조선 후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소문』의 책판은 모두 훼손되었으며 1615년(광해 7)에 내의원에서 간행된 목활자본을 시작으로 목판인 번각본들이 간행되었다. 이들 판본은 모두 12권본 형식이므로 조선 전기 형식을 이어받았다. 『경주간본』의 경우 『完營版目録』 등 18-19세기 여러 책판목록에 경주 부에 책판이 소장된 것으로 나오므로 분류되었으나 조선 전기 책판이 부분적으로 남은 것인지 새로 책판을 조성했는지는 불확실하다. 조선 후기 『소문』 판본²⁷⁾은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표 2> 조선 후기 『소문』 판본

판본명	간행년	형태사항	소장처 및 권책 사항
내의원간본	1615년	木活字本, 12卷 14冊. 四周雙邊, 半郭 23.2x16.1cm, 有界, 10行 18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32.8x21.3cm ²⁸⁾	한국학중앙연구원(6책) 성암고서박물관(2책)
내의원간본의 번각본 ①	17세기 중후반 추정	木版本, 12卷 14冊. 四周雙邊, 半郭 21.5x16.1cm, 有界, 10行 18字, 白口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30.4x21cm ²⁹⁾	고려대 도서관(완질)
경주간본	미상	미상	미상
내의원간본의 번각본 ②	18세기-19세기 전반 추정	木版本, 15卷 15冊(『運氣論澳』合本). 四周單邊, 半郭 20.8x16cm, 有界, 10行 18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30.5x19.9cm ³⁰⁾	국립중앙도서관, 남평문씨 인수문고, 경희대학교 도서관(완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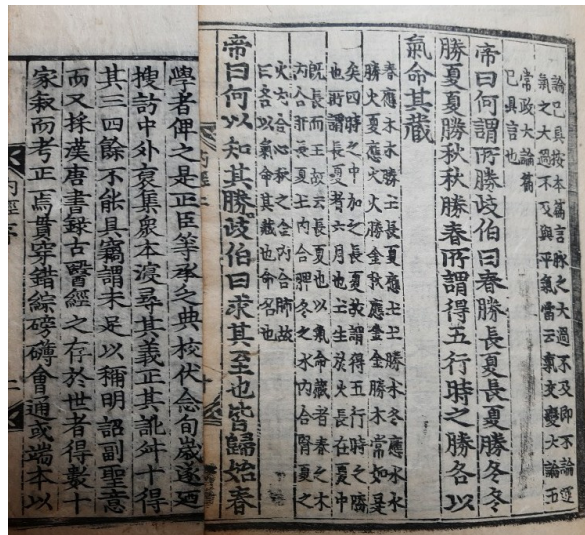
27) 박훈평(2014), 77-78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번각본을 14책과 15책 번각본으로 나누어 15책 번각본에만 劉溫舒의 저술인 『運氣論奧』 3권이 책으로 추가되었고 다른 차이도 있다고 보았다(<표 3> 참조).³¹⁾ 선행연구에서 14책 번각본의 경우 기관 소장본의 이미지만 활용하면서 半郭 크기를 비교하지 않았는데 2종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사진 3> 참조). 『운기론오』는 임진왜란 이전에도 간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일본 궁내성 서릉부에 소장 중인 乙亥字本 『運氣論奧』(청구기호 403-89)이다.³²⁾ 그런데 『운기론오』가 어떤 판본에 합본되고 다른 판본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간행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조선전기 목판본의 경우 금산간본에서 6책으로 언급하므로 『운기론오』 합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³³⁾ 일본 세이카도 문고에 소장된 조선 전기의 『소문』 목판 완질본도 『운기론오』 없이 12권 6책으로만 구성되었다.³⁴⁾ 즉 적어도 조선 전기의 『소문』은 『운기론오』와의 합본이 없었을 것이다. 가천박물관에 소장 중인 『新刊素問入式運氣論奧』를 보면 15책 번각본과는 다르게 서문과 총목 없이 바로 『운기론오』 내용이 처음부터 나오므로,³⁵⁾ 독립서임을 알 수 있다. 현존 『소문』 내의원 간본의 15책 번각본 수권에는 『소문』의 서문과 총목이 먼저 나온다. 그러나 현존하는 14책 번각본이 후대에 장정을 다시 하면서 『운기론오』를 제외했을 수도 있으므로 내의원간본의 번각본이 분명하게 14책과 15책으로 나뉘는지 확인할 수 없다.³⁶⁾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 중인 14책 번각본(청구기호 古 7651-5-4)에 서는 『운기론오』 필사본을 중간에 넣고 있으며 논자가 소장 중인 14책 번각본의 표지에도 “共十五”라는 기록이 있다. 조선 후기에 운기의학이 유행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임은 분명하지만 초간 당시의 구성은 파악하기 어렵다.

-
- 28)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의 형태 사항이다. 청구기호 K3-356.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접속일 2020.6.5.]
- 29) 고려대학교 소장본의 형태 사항이다. 청구기호 만송C6-A103-1-14.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접속일 2020.6.5.]
- 3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형태 사항이다. 청구기호 古 7651-11.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접속일 2020.6.5.]
- 31) 박훈평(2014), 77-81.
- 32)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접속일 2020.5.15.]
- 33) 柳希春의 『眉巖日記 제11책』을 보면 1576년(선조 9) 6월 16일에 “금산군수 홍인범이 소문 6책을 인출하여 보내니 참으로 소중히 여길 만 하여 진기하고 흡족한 물건이라 느끼다.”라 하였다. 문화재청 국가유산문화포털 <<https://http://www.heritage.go.kr>>. [접속일 2020.5.16.]
- 34) 차미애, 옥영정(2018), 173. 중국식으로 후대에 재장정되었으므로 6책은 후대에 채책되면서 바뀐 형식일 수 있다.
- 35) 문화재청 국가유산문화포털 <<https://http://www.heritage.go.kr>>. [접속일 2020.5.16.]
- 36) 이러한 문제는 15책 본의 목차에도 『운기론오』가 반영되지 않고 판심에는 서문, 목록 식으로 권책이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3> 내의원간본의 번각본 비교

	번각본 ①	번각본 ②
책수와 구성	12권 14책	15권 15책
首책 내용 순서	서문 + 총목 + 『소문』 1권	서문 + 총목 + 『運氣論澳』 上, 中, 下
匡郭과 版心	四周雙邊, 3葉花紋魚尾	四周單邊, 2葉花紋魚尾
白文	본문 중 어려운 한자를 처리	14책 본에 비해 일부만 처리
誤刻	적음	다소 많음
半郭 크기	22x16cm	20x16cm



<사진 3> 『소문』 14책본(우)과 15책본(좌) 반곽의 크기 비교
(논자 소장)

조선 전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저술한 『소문』 관련된 전문서나 주석서가 간행된 바는 없다. 조선 후기 石谷 李奎濬에 이르러서야 『소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성과가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1906년에 간행된 『素問大要』는 석곡의 대표 의학이론인 부양이론에 따라 『황제내경』을 검토 재구성하고 수정 및 주석 작업을 한 연구서이며, 『醫鑑重磨』는 『황제내경』에서 생리, 병리론 등을 가져와 『東醫寶鑑』을 매개로 하여 임상의학 전승 작업을 완성한 결과물이었다.³⁷⁾

朝本 『소문』 간행사를 보면 조선 후기의 15책 『소문』 번각 목판본에서 『운기론오』와 합본되어 간행되는 특이점이 있다. 이는 『운기론오』도 『소문』과 함께 의학관료의 강서로 활용되었을 가능성

37) 오재근, “조선 의가 이규준의 황제내경 의학 계승,”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28권 1호(2015), 72, 84. 또한 『소문대요』의 저본이 1615년 간행된 『소문』 계열로 밝혀졌다(오재근, “황제내경소문대요의 유통본과 그 저본이 된 조선 간본 황제내경소문,”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26권 4호(2013), 213-214).

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는 조선 후기 의학에서 운기학의 유행과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3. 조선 시대 『황제내경』의 講書 활용

3.1 조선 시대의 강서 활용

3.1.1 조선 전기

『황제내경』의 강서활용에 대한 최초 기록은 1430년(세종 12) 醫學 取才용 數目の 하나로 詳定所에서 세종에게 아뢰는 대목이다.³⁸⁾ 詳定所는 법전, 법규를 제정하거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기구였다. 1430년 과목 규정은 조선 최초의 의학 관련 규정이므로, 의료 제도 기틀을 잡는 시기부터 『소문』은 중요시되었다.

다만 『소문』의 실제 강서 활용은 시기별로 다르다.³⁹⁾ 15세기 동안 『소문』은 의학 관료의 강서가 되었다 빠지기를 반복한다. 1461년(세조 7) 3월 『本草』 등 5종을 의학 취재 과목으로 규정할 때에는 빠졌다가 10월에야 『소문』이 새롭게 추가된다. 1464년(세조 10) 1월 예조가 의원 취재 강서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할 때에 『소문』은 正從3품 의관을 대상으로 하는 강학서로 선정되었는데 가장 난이도 있는 의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성종조에 이르러 의원 취재 과목이 새로 정해졌는데, 1471년(성종 2) 5월 예조에서 아뢰어 정할 때에는 『소문』이 春等の 과목이 되었다가, 1472년(성종 3) 3월에는 다시 빠졌다. 이후 1476년(성종 7)에 완성된 『經國大典』을 보면 의과와 취재 과목에 『소문』이 빠져있다. 1547년(명종 2)에 명종의 전교(嘉靖丁未承傳)로 “의학 관서에서 봄가을에 취재 시험을 볼 때 여러 책 가운데 『소문』을 주된 책으로 삼아 臨講하고, 『동인경』과 『찬도맥』 대신에 『소문』 背講을 자원하면 특별히 두 배의 점수를 주며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산하게” 하였다. 이후 『소문』은 강서로서 계속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⁴⁰⁾ 전라도(금산), 충청도(충주), 경상도(선산)의 三南지역에서 책판으로 간행함은 전국에 널리 보급할 목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만 『경국대전』의 후속 법령인 『大典後續錄』 등을 모은 법령집인 1707년(숙종 33)의 『典錄通考』의 내용에도 『소문』 관련

38) 『세종실록』 1430년(세종 12) 3월 18일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http://sillok.history.go.kr>>. [접속일 2020.5.15.]

39) 이하 강서 관련 내용은 박훈평(2016b), 2-14의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40) 한국역사연구회 법전연구반 역, 『수교집록』 (서울: 정년사, 2001), 173.

“醫司春秋取才課試時, 諸書內, 以素問定爲主書, 一切臨講. 銅人經纂圖, 自願代講素問者聽, 素問背講者, 別給倍畫, 等畫者先計.”

규정은 없다.⁴¹⁾ 이는 1698년에 완성된 『수교집록』에 관련 내용이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3.1.2 조선 후기

18세기 들어서 『소문』은 강서로서 법전에 반영되었다. 강서로서의 『소문』 규정 명문화는 1746년(영조 22)의 『續大典』에 이르러서 이루어진다. 즉 『경국대전』 기존 규정에서 『瘡疹集』 등이 빠지고, 新增된 臨文 과목으로 『소문』이 새로 들어간다. 1778년(정조 2)에 완성된 혜민서 관청지 『惠局志』를 보면 “모든 책 중에 『소문』을 정식적인 주된 책으로 삼아, 일체의 임강 과목 즉 『銅人經』이나 『纂圖脈』 대신에 스스로 원하면 『소문』 背講을 청할 수 있는데, 別給을 주고 점수도 배로 준다.”하였다. 즉 당시 혜민서에서는 의관 祿試에 『소문』을 과목으로 활용하였다. 『속대전』의 取才조에도 『소문』 배강에 따른 別給 내용이 있으므로, 『해국지』 규정은 『속대전』의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속대전』 이후의 법전인 1784년(정조 8)의 『大典通編』과 1865년(고종 2)의 『大典會通』, 1867년(고종 4) 『六典條例』의 의과 관련 규정은 『속대전』의 규정과 같으므로 16세기 중반 정식화된 『소문』의 강서로서의 지위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의과가 혁파되기까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 小考

3.2.1 조선 전기의 지위

이상으로 볼 때 강서 관련하여 『내경』은 조선 전시기에 걸쳐 중요시된 의서임은 분명하나, 15세기까지는 확실하게 의학 관료의 강서로서 분명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하였다(<표 4> 참조). 그 이유는 무엇보다 당시 의관의 한문 소양 등의 부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⁴²⁾ 바로 임상에 적용하기 어려운 『내경』 자체의 성격 때문일 수 있다. 1464년 의학 취재 강서 규정에서 『소문』이 여러 의서 중 가장 난이도 있는 교재로 여겨지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소문』은 다른 의서들에 비해 해석과 직접적인 임상 응용에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후 시기에 『소문』에 대한 강학 추세가 점차 강화되면서, 16세기 후반 들어서는 의원 녹관 임용과 승진을 위한 필수 강서가 되었다.

4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규장각자료총서 <<http://e-kyujanggak.snu.ac.kr>>. [접속일 2020.5.15.]

42) 세종은 금원사대가로 대표되는 이론으로 무장된 중국 의서들을 조선에 안착시키기 위해 식자층의 개입을 원했고 이 구현방식의 하나로 의서습독관제가 운영되었다(박훈평, “15-16세기 조선 의학 관료의 신분 변천,” 『의사학』 제27권 3호(2018b), 300). 의서습독관의 운영은 당시대 의학 관료의 전반적인 한문 소양 수준이 높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기술직 의관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다면 굳이 의서습독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의서습독관은 의과를 통해 출사하지 않으므로 의과와 취재와는 관련이 없다.

<표 4> 각 시기별 과목으로 『소문』 채택 유무

시기	시험 종류	유무
1430년(세종 12)	취재	○
1461년(세조 7)	취재	×
1461년(세조 7)	취재	○
1464년(세조 10)	의원 강서	○
1471년(성종 2)	취재	○
1472년(성종 3)	취재	×
『경국대전』(1476년)	의과, 취재	×
嘉靖丁未承傳(1547년)	취재	○
『전록통고』(1707년)	의과, 취재	미수록
『속대전』(1746년)	의과, 취재	○
『해국지』(1778년)	취재	○
『대전통편』(1784년)	의과, 취재	○

조선에서 저술되어 간행된 주요 의서에서도 『내경』의 인용 사례를 찾을 수는 있다. 그러나 조선 전기 의서에선 『의방유취』를 비롯해 인용 사례가 흔하지는 않다. 먼저 『引用諸書』에서 『소문』을 언급한 『醫方類聚』조차 『소문』 원문을 직접 인용한 경우는 없다.⁴³⁾ 이는 대개 조선전기 의학서가 분과전문서이거나 醫論이 없는 方書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론서가 아니므로 『소문』을 직접 인용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론이 없는 방서의 사례인 1433년(세종 15)에 완성된 『鄉藥集成方』은 300여 종의 서적에서 인용되었는데 『소문』의 인용 사례는 없다.⁴⁴⁾ 조선 전기에 간행된 분과전문서는 胎產書와 救急方書, 瘡疹書 등이다. 태산서의 사례로 任元濬⁴⁵⁾이 1472년(성종 3) 이전에 저술한 『胎產集要』(『경국대전』의 의과과목)의 현존본인 낙질 1책에는 38종의 문헌이 인용되었고,⁴⁶⁾ 首醫 盧重禮⁴⁷⁾가 저술한 『胎產要錄』(1434년)은 21종의 문헌이 인용되었는데 2책 다 『내경』을 인용하지 않았다.⁴⁸⁾ 구급방 사례로 세조조(1458-1466년)에 간행된 『구급방(언해)』에는 8종의 문헌이 인용되고,⁴⁹⁾ 金正國⁵⁰⁾이 저술한 『村家救急方』(1538년)은 71여 종의 문헌이 인용되는

43) 안상우는 이에 대하여 첫째 기본서로서 의경류를 제시하여 의학의 원류만을 밝혔을 가능성과 둘째 초판시에 인용되었다가 세조대의 개편 과정 중에 刪削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밝혔다(안상우, “의방유취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40-41).

44) 김중권, “향약집성방의 인용문헌 분석,” 『서지학연구』 제35집(2006), 186, 198, 221-222.

45) 1423-1500. 본관은 풍천. 예조판서, 우참찬을 지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접속일 2020.5.15.]

46) 박훈평, “새로 발견된 조선전기 의학서 태산집요 연구,” 『장서각』 제36집(2016a), 10-11, 23-25.

47) ?-1452.3.11. 본관은 곡산. 상호군, 가선대부를 지낸 의관이다.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a), 143-144.

48) 장경은, “태산요록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12), 201.

49) 정순덕, “구급방의 의과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 33.

50) 1485-1541. 경상도관찰사, 예조참판을 지낸 문신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접속일 2020.5.15.]

데 둘 다 『소문』의 인용사례는 없다.⁵¹⁾ 창진방 사례로 의과 과목이었던 『창진집』(임원준 편)의 인용 문헌 43종에서 또한 『내경』은 인용되지 않는다.⁵²⁾ 즉 주요한 조선 전기의 의서에는 『내경』의 인용 사례가 거의 없다. 다만 직접 인용이 없다고 해서 『소문』의 영향을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전통의학의 이론 대부분이 『내경』에 그 뿌리를 두기 때문이다.

3.2.2 金元四大家와 『동의보감』

한편으로 『내경』의 인용 사례가 드문 이유에 대해서 조선 전기 의학에서 金元四大家⁵³⁾에 대한 이해와 자기 내면화가 충분하지 못했기에 『내경』 학습이 실제 임상과 연결되지 못한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 조선 중기 『東醫寶鑑』은 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동의보감』에서 『소문』과 『영추』는 주요한 인용 문헌의 하나였다. 首醫 허준이 1613년에 간행한 『동의보감』에서 『소문』은 역대의방 86종 하나로 언급되었고, 내경편 160회, 외형편 107회, 잡병편 190회 등 총 489회 인용되어, 전체 인용 서적 중 10번째로 많이 인용되었다. 또한 『內經註』도 18회 인용되어 55번째로 인용 서적 순위에 올랐다.⁵⁴⁾ 『동의보감』의 역대의방과 인용 문헌을 보면 『내경』의 일부인 『영추』를 독립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동의보감』에서 지칭된 『내경』은 『소문』으로 추정된다.⁵⁵⁾ 『영추』도 372회에 인용되어 인용 순위 14번째이므로,⁵⁶⁾ 둘을 합쳐 『내경』 전체의 실제 인용은 800회가 넘으며 인용 순위 6번째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성은 왜 생겨난 것일까. 『동의보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醫林撮要』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금원사대가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유완소의 직접 인용이 없고, 장종정은 1군데, 이동원은 6군데 인용되었으므로, 금원사대가의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논증하기도 하였다.⁵⁷⁾ 반대로 금원사대가가 본문의 歷代醫學姓氏에 모두 소개되었다는 점, 주진형은 다수 소개된다는 점을 들어 금원사대가의 이론을 매개로 『내경』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⁵⁸⁾ 『의림촬요』 이후 『동의보감』에서 금원사대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실제로 『동의보감』의 인용서적 순위에는 『丹溪心法附與』가 1,275회로 3번째, 『東垣十書』가 525회로 8번째, 『湯液本草』

51) 박수진, 김순희, “촌가구급방의 인용문헌 연구,” 『서지학연구』 제42집(2009), 493, 506.

52) 김성수, “조선전기 두창 유행과 창진집,”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제16집 1권(2010), 37-38.

53) 중국 금원 시대에 활동한 4명의 의가로 한의 기초 이론을 풍성하게 발전시켰다. 주진형(주단계), 장종정(장자화), 이고(이동원), 유완소.

54) 김중권, “동의보감의 문헌적 연구,” 『서지학연구』 제11집(1996), 215, 228-235.

55) 『동의보감』의 인용 방식과 후대 의서 등에 대한 파급성 및 조선 후기 『영추』의 조선에서의 간행 기록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 후기의 『내경』은 『소문』으로 보아도 된다. 예를 들어 순조 때 저술된 서유구의 『인제지』에서 인용문헌 『내경』은 『소문』이다. 현존하는 조선 간본 『소문』들의 경우 판심을 보면 “내경”으로 되어있지 “소문”으로 된 것은 없다.

56) 김중권(1996), 233.

57) 김홍균, “의림촬요의 의과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71-72.

58) 이경록 역, 『국역 의림촬요 1』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4), 23-24.

가 127회로 20번째, 『海藏』(해장은 王好古의 호)이 117회로 21번째, 『丹溪心法』이 70회로 31번째, 『儒門事親』이 68회로 32번째, 『保命集』이 45회로 37번째에 들어가 있는 등 금원사대가와 그 유파의 저작들이 다수 인용되었다.⁵⁹⁾ 허준의 독창성에 대하여 “이고의 溫補냐, 단계의 滋陰이나 하는 딜레마를 일원적 대립 관계를 초월하여 상보적인 會通의 구조로 나아갔다.”고 평하여 ‘會通’이란 단어가 활용되었다.⁶⁰⁾

금원사대가 관련 서적이 조선에서 처음 의학 관료의 강서로 채택된 사례는 1430년(세종 12) 상정소에서 의학 취재과목의 하나로 선정된 杜思敬의 『濟生拔粹方』이다. 『제생발수방』은 금원대 19종 의서를 집성하였는데 그 중 10종이 장원소, 이고의 補土派 계열 저작으로, 이는 『眞珠囊』, 『醫學發明』, 『醫壘元戎』, 『脾胃論』, 『此事難知』, 『潔古家珍』, 『陰證略例』, 『癰論萃英』, 『蘭室秘藏』, 『衛生寶鑑』이며, 그 외 주진형의 저작인 『活法機要』도 있다. 그러나 이후 의과와 취재 과목에서 『제생발수방』은 제외되었다. 1462년(세조 8) 강학 교재로 장자화의 『張子和方』이 의서습독관의 권장도서가 된 적이 있으나 그 때 뿐이었다. 조선 후기 『속대전』에 가서야 『동원십서』가 새로 추가된 과목이 되면서 정식으로 의과와 취재 과목으로 『비위론』 등의 금원사대가 관련 저작이 활용되었다. 『동원십서』는 1488년(성종 19) 중국 사행에서 처음 국내에 도입되어 간행이 되었다. 이 책은 임란 이전에는 전라도 나주에서 목판 간행기록(실제 간행 연도 불분명)이 있고, 1765년(영조 41) 혜민서에서 목활자로 중간되었다.⁶¹⁾ 이 중간본의 간행은 『속대전』(1746년)에 『동원십서』가 새로 과목이 된 것과 관련된다. 앞서 조선 전기에 강서로 채택되었던 『제생발수방』과 『장자화방』은 국내 간행기록이 없으며, 금원사대가 관련 서적으로는 명대 盧和가 편한 『丹溪先生醫書纂要』가 목판 간행되는데 1546-1547년 사이에 예천에서 초간되고 1702년(숙종 28)에 중간된다.⁶²⁾ 금원사대가 관련 서적 또한 조선 전기에는 강서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으며 국내 간행 역시 15세기 말 들어서야 시작되고 보급 확산되었으며 18세기에야 의과 과목으로서 활용되었다. 이는 앞서 살폈던 『소문』의 강서 지위와 유사한 면이다.⁶³⁾

59) 김중권(1996), 233-234.

60) 또한 “허준이 체질적 편향의 소이를 선천의 차원으로 소급하여 眞氣와 精氣神의 互根관계 규명하고, 자음에야 할 체질은 주단계를 들어 精門에서 다루면서 그 병기에 대해서는 虛勞門에서, 온보해야 할 체질은 이동원을 들어 氣門에서 다루면서 그 병기에 대해서는 內傷門에 밝혔다.”로 분석되었다. 장우창, “동의보감의 내경 인용,” 『동의보감 지식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217, 237.

61) 박훈평(2016b), 4, 7, 13.

62) 현존본의 말미에 간기는 별도로 없고, 교감 등에 참여한 원역 명부가 있다. 여기에 안현(安瑗)이 嘉善大夫, 경상도 관찰사로 나온다. 『조선왕조실록』 1546년(명종 1) 1월 17일 기사를 보면 通政大夫였던 안현이 가선대부로 가자되고 경상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나오고, 다음해 2월 19일 한성부 우윤으로 임명되어 체직되므로 예천간본의 간행 시기는 명종 1-2년 사이로 추정된다. 경주중간본은 간기가 있다. 안상우, 김남일, 차웅석, 오준호, 鄭金生, 梁永宣, 『해외에서 찾은 우리 옛 의학책 증보판』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163-165;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http://sillok.history.go.kr>>. [접속일 2020.5.15.]

63) 『상한론』은 송대 이전에는 전본이 회귀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아 孫思邈 등 일부 의가에만 인용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다 교정의서국에 의해 간행된 뒤인 1083년 의관 선발 고시의 과목이 되고, 1115년 태의학 方脈科 학생의 필수과목이 되는 등 관학 교재로서의 지위가 확실히졌다(邊銘昕, 『宋代傷寒學術與文獻考論』 (北京: 科學出版社, 2016), 19, 43). 송대 상한론의 연구가 풍성해진 것은 이러한 배경과 관련이 깊다. 어떤 특정 의서의

『동의보감』은 의과 강서로 활용되지 않았지만 조선 후기 조선의 의가라면 당연히 읽어야 할 의서로 자리매김하였다. 『동의보감』의 보급은 그 안에 담긴 의학 사상을 함께 전파하는 일이었다.

17세기 편찬된 『동의보감』은 금원사대가 의학을 활용하여 『내경』을 실제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텍스트로 당 시대에 작용했다. 『의감중마』를 평하면서 『황제내경』과 임상의학 전승의 매개로 『동의보감』을 거론한 것도 일견 시사하는 바가 있다.⁶⁴⁾

그러나 『동의보감』 이후의 의학 서적에서 『동의보감』이 미친 영향력은 상당하나 원문 그대로 편집된 의서를 제외하면 『내경』을 직접 인용한 사례는 별로 없다. 예를 들어 『동의보감』을 인용한 조선 후기 주요한 의서인 首醫 康命吉이 저술한 『濟衆新編』(1799년)에서 『내경』을 인용한 횟수는 『영추』 1회 뿐이다. 반면 『동의보감』의 인용 횟수는 총 1,048회에 달한다.⁶⁵⁾ 물론 이 책이 醫論보다는 치료방 중심으로 저술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惠庵 黃道淵이 저술한 『醫宗損益』(1868년)은 인용 목록에 『황제내경소문』이 있지만 실제 원문의 인용은 없고, 『동의보감』의 인용은 1,940회이다. 그런데 『소문』 대신 명대 의가 張介賓이 『내경』을 재편집한 『類經』을 2회 인용된 점이 독특하다. 장개빈의 종합 의서 『景岳全書』가 193회 인용됨에서 알 수 있듯이 경악의 의학사상에 해암이 깊게 영향을 받은 점⁶⁶⁾과 관련되어 보인다. 이밖에 李景華가 저술한 『廣濟秘笈』(1790년)에서도 『동의보감』의 인용사례는 80회인데 반하여, 『내경』의 인용은 없다.⁶⁷⁾ 물론 『광제비급』이 鄉醫에 의해 저술되어 그럴 수도 있다. 홍역 전문서이나 의론 부분이 적지 않은 『麻科會通』(1798년 저술)은 『내경』의 인용이 1회에 불과하지만 『동의보감』의 인용은 6회이다.⁶⁸⁾ 따라서 19세기 말 이규준에 이르기 전까지 『동의보감』처럼 『소문』을 임상에 매개할 수 있는 의학 이론 발달과 성과는 더디었다.

조선 후기 『동의보감』과 다른 매개 이론이 발전했는데 바로 영정조조 尹東里의 『草窓訣』로 대표되는 運氣醫學派이다. 이들은 『소문』 인용에 있어 적극적이었다. 운기의학은 『소문』 중에서도 運氣 7편에 대한 심화된 연구의 결과였다.⁶⁹⁾ 『동의보감』에 운기처방이 수록되는 등 기존에도 운기 관련 임상경험방과 이론은 있었다. 그러나 윤창열의 평가처럼 운기를 간단한 이론을 정립하여 임상에 적용한 윤동리의 업적은 탁월하였다.⁷⁰⁾ 『소문』과 『소문입식운기론오』의 보급과 강학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운기학의 심화가 이루어질 토양 풍토가 형성될 수 있었다.⁷¹⁾

경전화는 간행과 보급과 관련 그리고 이후의 텍스트에 대한 심화 연구와 연관된다.

64) 오재근(2015), 72, 84.

65) 이정화, “제중신편의 인용문헌 연구,” 『서지학보』 제35집(2010), 70-71.

66) 이진철, “의종손익을 통해 살펴본 황도연의 의학사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7), 31-34.

67) 차웅석, “광제비급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제10권 2호(1997), 104, 107.

68) 서봉덕, “마과회통의 의사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 60.

69) 김준태, 윤창열, “윤초창의 생애와 초창결에 관한 연구,” 『대한원전의학학회지』 제6권(1993), 189-227.

70) 윤창열, “윤동리의 가계와 초창결 중 운기연론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제30권 3호(2017), 49-50, 54.

71) 운기의학파를 제외하면 『소문』을 직접 인용한 사례가 드물다는 건 상대적으로 다른 의학 학파에서의 『소문』 연구가 미약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운기의학이 ‘의학이론으로서의 적합한가’에 대한 반론이 나오게 되면 『소문』과 임상의학과의 연계 고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의과와 의원 취재에 있어서 『소문』이 과목으로 활용되었기에 의학 관료라면 『소문』을 공부하는 것이 당연했고 그 결과 그들의 저작과 치료에는 『소문』이 인용되고 활용되었다. 더구나 앞서 살펴본 듯이 『동의보감』은 조선 후기 임상의 텍스트로 자리매김했고 이를 통해 『내경』의 실제 임상 적용도 가능해졌다. 근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조선 후기 의과와 취재 과목에서 『소문』이 정식으로 규제화 되는 것은 『동의보감』의 간행과 보급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⁷²⁾ 조선 후기 『소문』이 의약 관련하여 잘 활용되었다는 사례로 『승정원일기』를 들 수 있다. 관찬사료인 『승정원일기』에는 약방(내의원)의 제조와 어의들이 入診하면서 『소문』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4개의 사례가 수록되었다(<표 5> 참조).⁷³⁾ 예를 들어 1644년(인조 22) 인조에게 입진한 李馨益⁷⁴⁾은 “『黃帝素問』에 이르기를, 腎이 허한 사람은 꿈에 큰물을 건너면서 두려워하고, 火症이 있는 사람은 꿈에 火光을 본다.”라 하였다.⁷⁵⁾

<표 5> 『승정원일기』에서의 『소문』 인용 사례

시기	발언자	내용
1644년(인조 22) 2월 17일	內鍼醫 李馨益	黃帝素問云, 腎虛之人, 夢涉大水而恐懼, 火症之人, 夢見火光矣.
1660년(현종 1) 2월 27일	內醫院提調 李景奭 ⁷⁶⁾	素問所謂衰其大半而止, 蓋戒治之之或過也.
1715년(숙종 41) 2월 21일	醫藥同參 李時聖 ⁷⁷⁾	若以素問所謂發汗通腸利小便法
1726년(영조 2) 12월 7일	正言 柳謙明 ⁷⁸⁾	以素問七七之數, 爲斷, 而五十後生子, 謂之必無之理
1758년(영조 34) 12월 22일	醫藥同參 金福齡 ⁷⁹⁾	素問書云, 諸逆衝傷, 都是氣, 脾胃調則清氣在上, 濁氣在下

조선전기 『내경』이 의학 이론의 기본 텍스트라는 원론적인 입장과는 별도로 제도적인 수용이 미흡하고 의서에서의 활용이 잘되지 못한 까닭은 『내경』을 실제 임상에 활용할 매개 이론의 수용이 늦어진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동의보감』을 통하여 매개 이론인 금원사대가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어 조선화되었기에 『내경』 또한 잘 활용될 수 있었다.⁸⁰⁾ 운기의학 또한 『동의보감』과 다른

72) 명종 조 수교로서 의관의 취재 과목이 되기는 했지만 이전 시기에도 과목이 되었다가 빠지는 일은 반복되었다. 조선 의학 내에서 『동의보감』의 확고한 지위가 『소문』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73)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DB <<https://sjw.history.go.kr>>. [접속일 2020.5.15.]를 검색하였다. 『영추』를 인용한 사례는 없다.

74) 1597-1661.4.21. 본관은 전주. 인조 때의 내침의로 부평부사, 가선대부를 지냈다. 박훈평(2018a), 395.

75) 『승정원일기 87책』 인조 22년 2월 17일 병자 기사.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접속일 2020.5.15.]

76) 1595-1671. 본관 전주. 인조반정 후 알성문과에 급제. 인조, 효종, 현종조에 걸친 명재상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접속일 2020.5.15.]

77) 1647-1725.7.29. 본관 경주. 무과출신으로 의약동참의가 되어 승록대부에 오른 의관이다. 박훈평(2018a), 331-332.

78) 1685-1735. 본관 전주. 1719년 증광시 문과에 급제. 홍문관수찬, 용인현령 등을 지낸 문신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접속일 2020.5.15.]

79) 1695-1782(?). 본관은 경주. 1722년 증광시 의과 출신으로 전의감첨정을 지내고 의약동참의가 되어 승정대부를 지낸 의관이다. 박훈평(2018a), 65.

80) 물론 금원사대가 이전에도 『내경』이 전통 의학의 준칙이었다. 모든 의학서가 『내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다만

매개 이론으로 작용하면서 근대기까지 강한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원전학과 의사학을 비롯한 한의 문헌학 전반에 대한 위상 약화는 『내경』을 임상과 매개해오던 『동의보감』이라는 고전의 위상 약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즉 『내경』을 담보하여낼 새로운 매개체인 新『동의보감』의 완성으로 한의학 이론의 보고인 『내경』을 현대의 임상에 적용시킬 새로운 틀의 정립이 요구된다.

4. 결 론

『황제내경』은 동아시아 전통의학 이론의 準則이 되는 의서로서 현재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서도 강서로 활용되는 의서이다. 본고에서는 조선 시대 『황제내경』 텍스트의 간행과 의과 및 취재에서의 활용에 대하여 살피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615년 내의원 간본의 번각본이 14책과 15책으로 나뉘는지는 불확실하다. 현존하는 14책 번각본이 후대에 장정을 다시 하면서 『운기론오』를 제외했을 수도 있으므로 내의원간본의 번각본이 분명하게 14책과 15책으로 나뉘는지 확인할 수 없다.

2. 조선 간본은 조선 후기에 이루어진 『운기론오』 합본을 제외하면 내용의 변화는 없다. 그 외 형태상으로 조선 전기 간본은 大黒口이고 조선 후기 간본은 百口라는 차이가 있다.

3. 15세기까지는 『소문』이 의관의 필수과목이 아니었다가 16세기 중반 들어서야 필수과목이 되었다. 즉 『소문』이 조선의 전체 기간에 걸쳐 의관의 강학 교재로 활용된 것은 아니다.

4. 『내경』의 활용은 금원사대가 이론의 활용과 관련이 깊다. 금원사대가 의학의 교재화와 간행은 『내경』의 시기별 지위와 유사하였다.

5. 『내경』의 활용은 임상에 연결할 매개 이론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동의보감』의 편찬은 이러한 경향성을 강화시켰을 것이다. 『내경』은 『동의보감』의 주요 인용 문헌이었으며, 『동의보감』을 통해 금원사대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조선 전기와 달리 조선 시대 중기와 후기에 그 역할을 했던 매개물인 『동의보감』과 운기의학이 있었다. 그렇다면 현대 한의학에도 『내경』이 임상에 잘 연결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매개로 기능했던 『동의보감』과 같은 틀의 새로운 정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금원사대가 이론의 수용으로 『내경』을 더욱 풍부하게 활용하게 됨을 말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연석, 김남일. “한국 황제내경 연구 요약.” 『한국의사학회지』 제21권 1호(2008). 89-95.
- 김도훈. “원전학 교육현황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19권 4호(2006). 101-112.
- 김성수. “조선전기 두창 유행과 창진집.”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제16집 1권(2010). 29-41.
- 김준태, 윤창열. “윤초창의 생애와 초창결에 관한 연구.” 『대한원전학회지』 제6권(1993). 189-227.
- 김중권. “동의보감의 문헌적 연구.” 『서지학연구』 제11집(1996). 207-243.
- 김중권. “향약집성방의 인용문헌 분석.” 『서지학연구』 제35집(2006). 183-229.
-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7.
- 김홍균. “의림촬요의 의사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 노기춘. “임원십육지 인용문헌 분석고 2.” 『서지학연구』 제35집(2006). 231-271.
- 박수진, 김순희. “춘가구급방의 인용문헌 연구.” 『서지학연구』 제42집(2009). 491-520.
- 박훈평. “조본 황제내경소문 판본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제27권 2호(2014). 75-83.
- 박훈평. “새로 발견된 조선전기 의학서 태산집요 연구.” 『장서각』 제36집(2016a). 6-30.
- 박훈평. “조선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제29호 2호(2016b). 1-16.
-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a.
- 박훈평. “15-16세기 조선 의학 관료의 신분 변천.” 『의사학』 제27권 3호(2018b). 295-322.
- 백유상. “을해자본 황제내경소문에 대한 조사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24권 3호(2011). 113-124.
- 서봉덕. “마과회통의 의사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
- 손보기. 『금속활자와 인쇄술』.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 안상우. “의방유취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 안상우, 김남일, 차웅석, 오준호, 鄭金生, 梁永宣. 『해외에서 찾은 우리 옛 의학책 증보판』.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 오재근. “황제내경소문대요의 유통본과 그 저본이 된 조선 간본 황제내경소문.”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26권 4호(2013). 203-221.
- 오재근. “조선 의가 이규준의 황제내경 의학 계승.”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28권 1호(2015). 71-95.
- 윤창열. “윤동리의 가계와 초창결 중 윤기연론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30 권3호(2017). 41-54.
- 이경록 역. 『국역 의림촬요 1』.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4.
- 이정화. “제중신편의 인용문헌 연구.” 『서지학보』 제35집(2010). 61-82.
- 이진철. “의종손익을 통해 살펴본 황도연의 의학사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7.

- 장정은. “태산요록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12.
- 장우창. “동의보감의 내경 인용.” 『동의보감 지식체계와 동아시아 의과학』.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199-241.
- 정순덕. “구급방의 의과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
- 차미애, 옥영정. 『일본 세이카도문고 소장 한국 전적』. 서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8.
- 차웅석. “광제비급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10권 2호(1997). 93-113.
- 홍원식, 윤창열, 김용진. 『개정증보판 한중의학사 개설』. 대전: 주민출판사, 2017.
- 한국역사연구회 법전연구반 역. 『수교집록』. 서울: 청년사, 2001.
- 遼銘昕. 『宋代傷寒學術與文獻考論』. 北京: 科學出版社, 2016.

[전자정보원]

- 고려대학교도서관. 자료찾기 <<https://library.korea.ac.kr>>. [접속일 2020.5.16.]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접속일 2020.5.15.]
-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DB <<https://sjw.history.go.kr>>. [접속일 2020.5.15.]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http://sillok.history.go.kr>>. [접속일 2020.5.15.]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규장각자료총서 <<http://e-kyujanggak.snu.ac.kr>>. [접속일 2020.5.15.]
- 문화재청. 국가유산문화포털 <<https://www.heritage.go.kr>>. [접속일 2020.5.16.]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접속일 2020.5.15.]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접속일 2020.5.15.]
- 早稻田大學. Waseda University Library <<https://www.waseda.jp/library/en>>. [접속일 2020.5.16.]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n, Sang-Woo. 2000. *Medical Historical Research on Euibangyoochui*. Doctoral thesis.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 An, Sang-Woo, Kim, Nam-Il, Cha, Wung-Seo, Oh, Jun-Ho, Zheng Sheng, & Liang yongxuan. 2009. *Our old medicine book found abroad: Augmented edition*. Daeje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Baik, You-Sang. 2011. “A Study on Eulhaeja Huangjenaegyongsomun: Focused on Investigation of Publish era and Comparision with Other Korea-published Huangjenaegyong.”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4(3): 113-124.
- Cha, Mi-ae, & Ok, Young-jung. 2018. *Korean old books in Seikado library in Japan*. Seoul: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 Cha, Wung-Seok. 1997. "The Study of Bibliography on Kwangje- bikeup."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10(2): 93-113.
- Hong, Won-Sik, Yoon, Chang-Yeul, & Kim, Yong-Jin. 2017. *Introduction to medical history in Korea and China - Revision Edition*. Daejeon: Juminpress.
- Jang, Kyeong-Eun. 2012. *A study on Teasanyorok*. Doctoral thesis. Wonkw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Jang, Woo-Chang. 2016. "Quote of naegyeong of Donguibogam." *Donguibogam Knowledge System and East Asia* (pp. 199-241). Seongnam: Academy of Korean Studies.
- Jung, Soon-duk. 2009. *A hostorical Study of Gukeupbang*. Doctoral thesis.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 Kang, Youn-Suk, & Kim, Nam-Il. 2008. "A Brief History of Korea's Study of 『Internal Classic』."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1(1): 89-95.
- Kim, Chi-Woo. 2007. *A Study on the Publications in gosachwal-yo's woodblock and the List of Books*. Seoul: ACP.
- Kim, Do-Hoon. 2006. "A Study on the Current education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in Korea: A Study focused on Hwangje-Naegyeong."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19(4): 101-112.
- Kim, Hong-Kyun. 2000. *Medical Historical Research on Uirimchualyo*. Doctoral thesis.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 Kim, Joong-Kwon. 1996. "A Study on the Literature of Dongui Bogam."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11: 207-243.
- Kim, Joong-Kwon. 2006. "An Analysis of the Cited Literature of Hyangyak-jibseongbang."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35: 183-229.
- Kim, Joon-Tae, & Yoon, Chang-Yeul. 1993. "A Study on the life of Yoon Cho Chang and Cho-Chang-Kyeul."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6: 189-227.
- Kim, Seong-Su. 2010. "The smallpox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Changjinjip."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6(1): 29-41.
- Lee, Jeong-Hwa. 2010. "A Study on the References Cited in Jejung Sinpyeon." *Seojihakbo*, 35: 61-82.
- Lee, Jin-Cheol. 2017. *A study of Hwang Doyeon's medical thought through 『Uijongsonik』*. Doctoral thesis.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 Lu Mingxin. 2016. *Academics and Literature Discourse of Song's Shanghan theory*. China,

Beijing: Sciencepress.

No, Gi-Chun. 2006. "A Citation Analysis of Limwonsibyukji: With the Focus on Injaeji."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35: 231-271.

Oh, Chae-Kun. 2013. "Study on the circulated versions of Major Essentials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Plain Questions and its original publication: Chosun's version of Huangdi's Internal Classics Plain Questions."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6(4): 203-221.

Oh, Chae-Kun. 2015. "Lee Gyoojoon, a Korean Medical Scientist's Succession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Medicine."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8(1): 71-95.

Park, Hun-Pyeong. 2014. "A Study about the Joseon-published Huangjenaegyeongsomun."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7(2): 75-83.

Park, Hun-Pyeong. 2016a. "A Study on Newly Discovered Taesanjibyo, Medical Book in the Early Period of Joseon Dynasty." *Jangseogak*, 36: 6-30.

Park, Hun-Pyeong. 2016b. "Review on Medical Texts in Joseon 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9(2): 1-16.

Park, Hun-Pyeong. 2018a. *A total list of medical Bureau from the Joseon Dynasty*. Daeje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ark, Hun-Pyeong. 2018b. "The Change of the Status of Joseon Medical Bureaucrats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27(3): 295-322.

Park, Su-Jin, & Kim, Soon-Hee. 2009. "A Study of Literatures Cited in Ch'onga-gugUppan."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42: 491-520.

Seo, Bong-Deok. 2009. *Medical Historical Research on MaKuaHoiTong*. Doctoral thesis.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Son, Bo-Gi. 1974. *Metal type and typography*. Seoul: King Sejong Memorial Society.

Translated by korean history research society legal research group. 2001. *Sugyojiblog*. Seoul: Cheongnyeongpress.

Translated by Kyungrok Lee. 2014. *Translation of Uilimchwal-yo 1*. Seoul: King Sejong Memorial Society.

Yoon, Chang-Yeul. 2017. "A Study on Family line of Yoondongri and Ungiyeonron in Chochangkyeul."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30(3): 41-54.